주요개념 : 지각된 부모-자녀관계, 자아개념

지각된 부모- 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문 영 숙*·한 진 숙*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처음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집단이다. 건전한 인격과 형성은 건전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역할과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며 특히 아동은 부모와의 접촉에 의해서 그들의 성격이 형성되고 그 후의 성인생활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역할은 자기 자신의 세계에 대한 가시적 상호행위를 통하여 하나의 경험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은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및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정원식, 1968).

인생의 대부분의 국면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 및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보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임이 명백해져 왔고(Purkey, 1968), 또한 그러한 지각방식이 개인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고 있다.

개인의 대인관계나 발달상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간관계의 근원이 되어온 부모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 자녀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동시에 매우 복잡한 심리 사회적 관계로 이 관계에서 갖게 되는 상호작용은 자아개념의 형성 및 앞으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나타낸다. 스스로의 자아를 쓸모 없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한 자아개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며 이러한 비현실적인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면, 대인관계면에서 비현실적인 방식의 행동양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사람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신저자 : moon0113@empal.com

은 자기 생활습관, 태도, 대인관계 등 모든 면에서 능동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부모가 아동을 배척한다면 작게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와 나아가서는 성격장애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랑으로 질식할 정도로 익애나 혹은 과잉보호 따위는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부모의 칭찬 한마디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일시의 대상인 부모가 자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녀들은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더 나아가 행복감에 사로잡혀 모든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제 1차적인 최초의 경험의 장으로서의 가정생활을 통해 스스로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심리적 환경이 그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고 또 나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 와 현재 부모-자녀 간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3. 용어정의

1) 과거 부모-자녀관계

16세 이전의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회고하는 부모-자녀관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로 부모의 돌봄(care)차원과 과잉보호(overprotection) 차원을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2) 현재 부모- 자녀간의 애착정도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차원, 신뢰감 차원, 소외감 차원 정도를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3) 자아개념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감정적 태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1969)의 자아개념 검사 중에서 개인의 자기존중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족의 느낌, 자기 성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반영하는 성격적 자아를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1. 부모-자녀관계와 자아개념

부모의 수용은 자녀를 격려하고 도와주려는 부모 행동의 총화라고 정의된다(김성일,1993). 수용적인 부모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며 자녀가 필요할 때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따라서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부모의 친밀한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에 집착하지 않게 한다(Staub, 1978).

Chorost(1962)는 부모의 온정이 정서장애 청소년의 적대감과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고, Kagan(1958)도 거부의 분위기가 부적응의 발달가 정적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부모 자

녀의 수용적 친밀감은 자녀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개념 형성 및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화 과정에서 온정, 수용과 같은 부모의 돌봄 차원과 과보호등의 통제 차원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부모를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주는 사람으로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배워서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Bigner(1979)는 어머니가 일관된 애정을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강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 보면, 청년기도 성장해감에 따라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부모의 실재여부에 의한 영향은 줄어들고 언제나 필요로 할때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한 것으로 변환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안정애착과 관련있는 상호작용의 특징들 중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이 가장 중요하다(Ainsworth et al., 1974)는 연구에서도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부모 자녀에 대한 민감성은 자녀의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욕구에 보조를 맞춤으로서 자녀로 하여금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을 증진시켜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적 민감성은 주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의사소통은 사람들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특히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이 의사소통은 의미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방식, 성장시 환경, 성장시 외상적 경험, 성별 등으로 (강문희, 1982), 이중에서도 비행과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의 확립에 중요시된다. 이에 관해 Coopersmith (1968)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자체보다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아개념, 특히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Shvelson(1976)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환경으로부터 얻게되는 경험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귀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자아에 대한 지각이다.

부모는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최초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며 그 사랑과 보호의 속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유아는 자신의 세계를 보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즉, 어머니는 유아의 자아이고 이것은 서서히 유아에게 양도되며 이 초보적인 인간관계가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태여야만 바람직한 자아와 초자아가 발달된다.

Erikson(1985)은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에 부모와의 동일시가 기초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자아존중과 관련된다는(Grusec & Rechler,1980)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관계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각된 과거 부모- 자녀 관계와 현재

부모-자녀 간의 애착정도를 알아보고 또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survey research)이다.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논산시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2003년 10월 6일에서 10월 1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실시절차는 연구자가 대상자는 방문하여 충분히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주의 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3. 연구도구

1) 과거 부모-자녀 관계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Parker (1979)등이 개발하고 Carson(1987)에 의해 개정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바탕으로 송지영(1992)이 개발한 한국판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16세 이전의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보고하는 회고형 25문항으로 이뤄어졌으며, 돌봄(care)과 과잉보호(overprotection) 의 두차원으로 나뉜다. '돌봄' 차원은 돌봄 대 무관심/거부적인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며, '과잉보호' 차원은 통제/과잉보호 대 독립성, 자율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안그랬다'에서 '아주 그랬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돌봄 차원이 .84, 과보호 차원이 .82이었다.

2) 부모- 자녀간의 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모- 자녀간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청년기 대상의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IPPA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부모님이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시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10개의 문항들이다. 둘째는 신뢰감(Trust)으로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시며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0개의 문항이며, 셋째로 소외감(Alienation) 요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형의 척도로 평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의사소통이 .81, 신뢰감이 .81, 소외감이 .81이었다.

3)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가정적 자아의 5요인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적 자아는 개인의 자기 존중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족의 느낌, 자기 성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반영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8 이었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와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과의 관계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가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균은 <표 1>과 같다.

〈표 1〉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 평균점수

현재 \ 과거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돌봄	상	3.85(0.53)A	4.15(0.43)A	2.04(0.54)A
	중	3.66(0.39)B	3.99(0.41)B	2.13(0.49)A
	하	3.18(0.49)c	3.40(0.48)c	2.71(0.67)B
과보호	상	3.34(0.53)A	3.50(0.55)A	2.60(0.72)A
	중	3.56(0.52)B	3.86(0.47)B	2.36(0.57)B
	하	3.76(0.53)c	4.10(0.49)c	2.04(0.55)c

*ABC : Group 간의 차이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 평균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현재 부모 자녀간의 애착 분산분석결과

종속변수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p
의사소통	돌봄	15.591	2	7.795	34.910	0.000***
	과보호	5.414	2	2.707	9.754	0.000***
신뢰감	돌봄	20.665	2	10.333	52.417	0.000***
	과보호	11.054	2	5.527	21.819	0.000***
소외감	돌봄	16.699	2	8.350	25.261	0.000***
	과보호	9.288	2	4.644	12.214	0.000***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과거 부모-자녀관계에서 돌봄을 높게 지각한 자녀는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에서 평균 3.85로 돌봄이 중간정도(평균 3.66), 돌봄이 낮은 정도(평균 3.18)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뢰감에서도 돌봄을 높게 지각한 자녀가 평균 4.15로 중간정도(평균3.99), 낮은 정도(3.40)로 지각한 자녀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외감에서는 돌봄을 낮게 지각한 자녀가 평균 2.71로 중간정도 (평균 2.13), 높은정도(2.04)로 지각한 자녀보다 높은 정도의 소외감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거 부모- 자녀관계에서 과보호를 높게 지각한 자녀는 현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평균 3.34로 과보호가 중간정도(평균 3.56), 과보호가 낮은 정도(평균 3.76)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뢰감에서도 과보호를 높게 지각한 자녀는 평균 3.50으로 중간정도(평균 3.86), 낮은 정도(평균 4.10)로 지각한 자녀보다 신뢰감을 낮게 지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외감에서는 과보호를 높게 지각한 자녀가 평균 2.60으로 중간정도(평균 2.36), 낮은정도(평균 2.04)로 지각한 자녀보다 높은 정도의 소외감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각된 과거 부모 -자녀 관계(돌봄, 과보호)는 현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돌봄, 과보호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4>, <표 5>.

〈표 3〉 현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변인	R	R^2	R^2change	Fchange	F값
돌봄	0.597	0.356	.0356	98.362	97.36***
과보호	0.601	0.361	0.006	1.511	50.10***

*p<.05 **p<.01 ***p<.001

〈표 4〉 현재 부모-자녀간 신뢰감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변인	R	R^2	R^2change	Fchange	F값
돌봄	0.664	0.441	0.441	140.681	140.68***
과보호	0.682	0.466	0.024	8.044	77.15***

*p<.05 **p<.01 ***p<.001

〈표 5〉 현재 부모-자녀간 소외감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변인	R	R^2	R^2change	Fchange	F값
돌봄	0.504	0.255	0.255	59.406	59.41***
과보호	0.523	0.274	0.020	4.655	32.65***

*p<.05 **p<.01 ***p<.001

돌봄은 의사소통의 35.6 %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차원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7.36, P<.001).

과보호 차원은 의사소통에 0.6% 정도의 설명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0.10, P<.001).

신뢰감에서는 돌봄 차원이 44.1%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7.36, P<.001).

과보호 차원은 2.4% 정도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0.68, P<.001).

소외감에서는 돌봄 차원이 25.5%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9.41, P<.001)

과보호 차원은 2.0% 정도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65, P<.001).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지각된 과거 부모와의 관계는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각된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 수준이 높았으며 소외감 수준은 낮았다. 반면에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신뢰감의 수준으 낮았고 소외감 수준은 높았다.

또한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돌봄 차원이 과보호 차원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경(1995), Parker(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수용, 이해등의 돌봄 차원이 중요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Thomas, Weigert, Winston(1984)에 의하면 부모의 행동수용 차원이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다 잘 예언해주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Chorost(1962)도 부모의 온정이 정서장애 청소년의 적대감과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고, Kagan((1958)도 거부의 분위기가 부적응의 발달과 정적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부모 자녀의 수용적 친밀감을 자녀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는 <표 6>와 같다. 돌봄 차원과 자아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0.512, p<.001).

〈표 6〉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와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자아개념
돌봄	0.512***
과보호	-0.349***

*p<.05 **p<.01 ***p<.001

과보호 차원과 자아개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0.349, p<.001).

〈표 7〉 자아개념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변인	R	R^2	R^2change	Fchange	F값
돌봄	0.515	0.265	0.265	57.811	57.81***
과보호	0.536	0.287	0.022	4.822	32.01***

*p<.05 **p<.01 ***p<.001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과보호)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돌봄 차원과 과보호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개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분석결과 돌봄 차원은 자아개념의 26.5%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57.81, p<.001), 과보호 차원은 자아개념에 2.2%의 설명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01, p<.001).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과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각은 자녀의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지각된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개념 수준이 높았으며, 반면에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개념 수준은 낮았다. 또한 자녀의 자아개념과 관련해서도 부모의 돌봄 차원이 과보호 차원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남숙(1997), 이은경(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김명자(1978)와 장도현(1985)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심영현(198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권위적 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의 여러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영애(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거부, 제제의 양육행동은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수용적인 돌봄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다. 심리적 성장환경인 부모의 수용적인 돌봄은 자아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적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돌봄의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음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과거 부모-자녀관계가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10월 6일에서 10월 18일까지였고 논산시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97부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과거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을 사용하였고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문항들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의 자아개념은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와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에서는 돌봄 차원에서 의사소통(p<.001), 신뢰감(p<.001), 소외감(p<.001)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과보호 차원에서도 의사소통(p<.001), 신뢰감(p<.001), 소외감(p<.001)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돌봄, 과보호 차원이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변인에 갖는 설명력은 의사소통에서는 36.1%, 신뢰감에서는 46.6% 소외감에서는 27.4%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는 돌봄 차원은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관계(r=0.512, p<.001), 과보호 차원은 자아개념과 부적인 상관관계(r=-0.349, p<.001)를 나타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돌봄, 과보호 차원이 자아개념에 갖는 설명력은 28.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지각된 과거의 부모-자녀관계는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관계 증진 및 아동의 성장 발달에 관한 간호중재시 실제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문희 (1982). 자아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발달 심리학적 고찰. 학생생활연구, 2, 경기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3-14.

고남숙 (1997).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 자녀관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자 (1978) 여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4), 75-84.

김성일 (1993).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성격발달. 정신건강 연구. 제 12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심영현 (198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법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경 (1995).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도현 (1985). 부모양육행동이 자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원식 (1968). 가정환경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

Ainsworth, M. D. S., Bell, S. M., & Stayton, D. J. (1974). Infant attachment and social development : Socialization as a product reciprocal responsiveness to signals. In Richards, M.P.M.(ed.) The integration of a child into a social world(pp.99-135).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Armsden, G. C. & Greenbert, M. T. (1987). The Inb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Bigner, J. J. (1979).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 Macmillan.

Chorost, S. B. (1962). Attachmetn and loss : Ret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Coopersmith, S. (1968). Studies in self-esteem.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 2, 218-224.

Erickson, M. F., Strufe, L.A.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behavior problems in a preschool high-risk sample. Monogr Soc Res Child Dcv; 50(1-2, serial No209): 147-166.

Gross, I. H., Crandall, E.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Grusec, J. E. & Recchler, E. (1980). Attribution reinforcement and altruism :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25-534

Kagan, J. (1958).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Psychological Review, 65, 296-305

Paker G. (1979). :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 Br J Psychiatry, 134, 147.

Purkey, W. W. (1968). The search for self : evaluating students self concepts. Florida Educ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uncil Research Bulletin. 4 no. 1. University of Florida.

Staub, E. (1978). Socialization by parents and peers experiential learning of prosocial behavior. In steven, Jr. J. H. & Mathews, M. (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 Washington, Dc :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Thomas, D. L., Weigert, A. J. & Winston, N. (1984). Adolescent identification with father and mother : a multi-national study. Acta Paedologica 1(1), 47-68.

ABSTRACT
Key Words : Perceived parental bonding, Self-concept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Bonding on Self-Concept

Moon, Young Sook* · Han, Jin Sook*

The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past parent-child bonding on present parent-child attachment, self-concept.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October 6-18, 2003.

The subject was college students in university located in Nonsan, Taejon city and 197 surveys were used in the analysis.

As for the tools used in this study to assess the perceived past parent - child bonding scale by Parent Bonding Instrument - Korean Version, and present parent-child attachment were measured with the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self-concept were measured with Jung, Won Sik's self-concept inventory.

For the data processing, the analyses of variance,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were carried ou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perceived past parent-child bonding on present parent-child attachment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are made by communication, trust, alienation in care, overprotection perceived past parent-child bonding.
2. A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past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 self-concept, a significant correlation is revealed between care, overprotection perceived past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 self-concept.

* Department of Nursing , Ko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moon0113@empal.com